자신에게 내재한 불성 믿으라

☞ 19면에서 계속

닙니다. 어떤 사람은 밉고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주위의 싫고 좋음을 볼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 잘잘못을 볼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을 다투면서 나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끔들 자기가 자기 과제에서 벗어나려고 나가는 길에 거기서 이 돌 차고 저 돌 차면서 장난하면서 허송 세월을 다 보내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미운 생각을 하면 한없이 밉고 이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이쁜 겁니다.

'그건 왜냐? 물론 서로가 이쁜 짓을 못했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지 않겠죠. 허나 그거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일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지, 제 삼자가 그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게 행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 볼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남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거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 볼 여지가 없고, 잘못되는 거를 볼 때 '아, 내가 몰랐을 때 예전에 내 모습이로구나.' 또,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나도 전자에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남에게 참 불순했겠지.' 이렇게 자기한테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로 돌려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의 탓을 하고 바깥으로 끄달린다면 절대 남을 리드할 수도 없고 내가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무슨 공부인 줄 아십니까? 죽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왜냐? 산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건지려면 죽은 소굴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부터 봐야, 죽은 사람부터 나하고 친구가 돼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떻게 잘못한 차원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들어갔는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차원에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가? 이거를 상세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절대로 남을 한 명도 건질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인공에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살아온 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너는 그렇게 하면 좋지 못해!" 이렇게 몰팡스럽게 말을 던지거든요. 또 때로는 자식들이나 부부지간에도 "어휴! 저거는 죽지도 않어."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무슨 원수로 태어나서 저렇게 내 속을 썩이고 죽게 만드나, 그런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없애려고 든다면 그 속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인과성으로 온 건데, 그걸 바깥으로 말을 해서 없애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생각들이 나온 그 자리에다 되 넣어서, 과거에 입력된 것에 자꾸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져야 만이 그게 없어지고 착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잘잘못을 넓히고 펼쳐서 스스로 고를 만들지 말고 공을 만들듯이 똘똘 뭉쳐서 근본에 던져 놓고 자유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궁합과 사주가 아주 나쁘다는데

문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다 가르침을 구합니다. 27세 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26살로서 각기 다른 대학을 나왔으나 전공이 같고 같은 혈액형을 가졌으며 성격도 잘 맞고 잘 어울리는데, 궁합과 사주가 아주 나빠서 결혼을 하고 나면 병을 얻게 되고 헤어질 수라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그렇게 사주를 보고 와서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여쭙니다. 자기들만 좋다고 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들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 약한 중생들인지라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께서 길을 일러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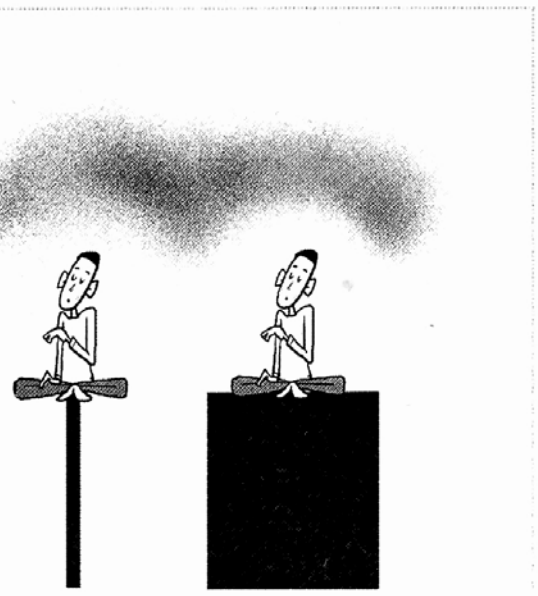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사람 건지려면 죽은사람부터 봐야

사주 궁합 따로 없고 마음먹기에 달려

답 여러분이 전자에서부터 관습으로 살아나가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무엇을 봐야 된다, 혼인을 해도 궁합을 봐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 궁합들을 잘 봐서 모두들 그렇게 잘 사십니까?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를 잘 봐서, 그렇게 손을 안 타서 애고도 없고 병고도 없이 다들 그렇게 잘 사십니까?

내가 꼭 이사를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날이 그냥 이사 가는 날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날, 식구들이 모두 노는 날이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이 서로 봐서 아주 나하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지면 그대로, 주위에서 데리고 살 것 아니니 그대로 궁합이 좋다고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되는 데도,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 데도 말입니다. 궁합이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걸 봐야죠. 이게 궁합이지 다른 게 무슨 궁합이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날짜에 궁합이 붙고 무슨 윤회에 궁합이 붙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잘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보고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그게 궁합이 맞는 겁니다. 여북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모두가 그냥 엉거주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노예죠. 부처 될 가능성이 99%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예가 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는 대로 노예가 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대로 노예가 되고 이런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살아 나오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에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있는데, 온통 달린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를 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미줄이 됩니까? 그것도 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죠? 이사를 잘못 가면 뭐 잘못된다고 해서 날짜를 생각을 안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나,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가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요만한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간데 없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되어 있으니 자기를 이끄는 그 주처를 믿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를 다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길한 징조 어떻게 대처할지

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 생활에 커다란 용기를 얻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히, 주인공을 철통같이 믿으라는 말씀이 무척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연한 징조 같은 데 무척 예민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큰 시험을 하나 두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인근의 선 센터를 찾아 108배를 하던 중, 합장 주가 끊어져 구슬들이 바닥에 다 흩어졌습니다. 당시, 내심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하고 무척 신경이 쓰였으나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요? 과연, 그러한 징조가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마음 상태가 그러한 것들을 자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우연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밤중에 눈을 감고 한번 앉아 보세요. 여러분이 부산에 갔다 왔으면 부산에 갔던 일이 다 환하게 생각나실 거예요. 그거 아는 놈이, 그놈이 자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생각을 좋게 해서 맡겨 놓으세요. 안되겠다, 안 좋은 징조다, '아휴, 이거 또 안될 꿈을 꾸었네, 이게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하고 아주 그냥 골탕을 하고 이래서야 어디 부처님답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본래불!"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불(佛)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분들이 새털 같은 날에 끝간데 없이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길 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하고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고, 손 없는 손으로 만 가지 칠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우선 믿으세요. 찾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한테 그냥 자리하고 있는데. 좀 믿어 봐라 이거예요. 불심지처럼 물러서지 말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용돌이 속에 내가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탁 버리겠다.' 이런 패기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살아요,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왜 살수가 없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자성불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그랬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안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게 어디 있나?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겠지.'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해 달라지 않아도…. 그러니 더 잘 알고 있는 그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하는 거를 알고 있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이는 대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죠, 알고 있으니까. 말은 안하고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난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그거 잘 생겼는데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못 믿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시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성계의 꿈 이야기 해드리죠? 꿈을 꿨는데 죽을 꿈을 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새털 같은 날에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찌 죽을 게 있노, 좋은 일 생기겠구만, 승진하겠구만, 하고 거기에 맞춰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겁니다. 밀어 던져요,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아픔과 내 아픔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한번 돌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 몸뚱이 속에 모든 것이 회전해 줄 텐데도 근본을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 안 보이는 데서 50%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답고 흥겹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듬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